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1/15~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1. 위치 : 수세인트마리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멀어서 도심으로는 못가지만 잘하면 미국 수세인트마리로 방문은 가능합니다. 2. 규모 및 시설 : 순천향대를 기준으로 생각보다 캠퍼스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저희가 쓰는 건물은 2개였습니다. 학교시설은 좋았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 전체적인 분위기 : 우선 선생님들이 항상 하이텐션이셔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 중에서도 아시안 유학생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끝나고 자주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간 한국학생들도 다들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어떤 활동이든 열심히했고 학교 끝나고 남은 시간에도 각자 집에만 있는게 아니라 서로 집에 놀러가서 파티도 하고 동네 여기저기 구경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한게 아닌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모든 수업은 Intermidate과 Advanced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저는 Advanced반이었습니다. 1. Grammar : 평소 우리가 쉽게 영어에서 실수할 수 있는 문법에 대해 배웁니다. Comma와 Semi-Colon의 제대로 된 사용법, Conjunction에 관한 내용이고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 칠판에 문장을 써보고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 첨삭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PPT를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더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3주동안 총 3번의 퀴즈가 있는데 그중 제일 높은 점수를 성적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대신 채점할 때 점하나 안 찍은 것, 대문자로 안 적은 것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수업내용을 이해했는지 정도 수준의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2. Listening through Media :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일단 주제가 환경보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강의실에서 영상을 보는 게 위주였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안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환경보존인만큼 어려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어로 내 의견을 말해야했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수업이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주제에 대한 글쓰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공익광고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조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원낭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책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3. Reading/Cultural Studies : 이 수업에서는 알고마대학교 건물에 대한 기원과 캐나다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Aboriginal 사람들이 캐나다인에게 어떻게 정복당했는지,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참하게 교육을 받고 죽어나갔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정부의 계속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는 방식 등에 대해 배웁니다. 이걸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사과는커녕 인정조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캐나다의 태도와 많이 상반,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스크립트를 한명씩 돌아가며 읽고 뜻을 해석하는 정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로는 대학 내에 실제로 있는 Residential School Centre에 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생존자들의 사진이나 그 당시 학교의 사진을 전시해둔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구경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4. Oral Presentation and Vocabulary Building : 대중앞에서 효과적으로 발표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나중에 있을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업 내용은 수업 시간에 1분이나 2분씩 각자 주제를 정해 바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있을 전체발표에 적용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은 각자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주제들을 생각해놓고 나중에 비슷한 주제끼리 조를 짜서 발표를 준비하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Sports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전통 스포츠로 태권도를 소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최하면서 어떤 종목에 강점을 보이고 새롭게 떠오른 스포츠스타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겨울스포츠를 워낙 잘하는 나라라서 한국에선 관심없는 스포츠들도 캐나다에선 누구나 아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쉽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학교에서 진행----- 1. Volunteer

Retirement Home, Anne McCrea School, Echo Bay School에서 한국에 대해 알리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각 한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봉사내용은 옷놀이, 한복 종이접기, 한국전통물건 & 레시피소개, 이름 한국어로 적어주기. 총 4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국을 소개할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는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줄지 방법은 어떻게 나뉘야 하는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시피를 PPT로 만들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레시피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책처럼 만들어서 준비해갔습니다. 저희는 찜닭과 주먹밥을 준비해갔는데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찜닭은 어렵고 주먹밥은 쉬운 것이라고 소개를 하니 둘 중에 하나는 해보겠다며 레시피를 꼭 들고가셨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한복을 직접입어볼 수 있도록 했고 전통 부채, 우리나라 돈, 엽서카드, 젓가락 등을 가지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보여주며 캐나다 달러로 얼마나 할지 맞춰보라고 했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꼈고 다른 문화에 편견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캐나다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Skating at Clergue Park and Downtown Walking Tour

강이 얼어있는 공원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적인 얼음판에서만 스케이트를 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여기는 자연 그대로 얼어붙은 강이었기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해서 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주변이 눈이 있기 때문에 폭신평신했어서 크게 다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추운데다 스케이트까지 타려니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마스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수도없이 할만큼 추웠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방수되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그냥 가벼운 스마트폰장갑같은 것 들고 갔다가 손가락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방수되는 천장갑 들고가셔야 합니다. 스케이트화는 학교나 홈스테이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빌려주셨습니다.

스케이트를 어느정도 타고 나면 다같이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사먹어도 되고 안사먹어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같이 들어가면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눈치보여서 몇 잔 시켜먹었습니다. Canadiano라는 커피였는데 아메리카노에 메이플 시럽을 탄 캐나다 스타일 커피라고 해서 먹어보았습니다. 뜨거울 땐 달고 맛있었는데 식으면 식을수록 시큼해졌습니다. 그래도 경험상 한 번 먹어볼만은 합니다.

3. Make Moccasin Keychains

진짜 가죽으로 직접 바느질해서 작은 모카신 키링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크기만 작고 진짜 모카신 만들 때 쓰는 재료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죽도 진짜 동물가죽이었고 실도 그냥 실이 아닌 힘줄같이 절대

안꿍어지는 실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바느질을 못하면 금방 망합니다... 그래도 망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서 걱정없이 제 마음대로 망칠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것은 선생님이 마무리해주셨습니다.

4. Alpaca Farm

말그대로 알파카를 보러가는 활동입니다. 농장이다보니 냄새가 많이 심하지만 알파카가 귀여워서 괜찮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면 알파카를 만날 때 주의사항을 듣고 이동합니다. 알파카가 겁이 많은 초식동물이다보니 조용한 소리로 말해야 하고 뒤에 서있으면 안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뒤에 서있으면 안되는 이유는 발로 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듣고 알파카를 보러 가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한 명당 한팩씩 먹이를 줍니다.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오자마자 먹이를 먹으러 오는 알파카들이 몇 있습니다. 그 때부터 그냥 자율적으로 주면 되는데 알파카는 이빨이 아래턱에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먹이 다 주면 근처에 서성이다가 눈치보고 털을 만져보면 되는데 알파카가 귀여운거 다 떠나서 진짜 엄청 보송보송합니다. 구름을 만진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만져본 사람만 아는 느낌입니다... 알파카랑 사진찍고 시간 보내고 나서 알파카 털로 만든 양말, 모자, 장갑, 인형을 파는 곳에 가는데 여기서 사도되고 안사도 됩니다. 다 수제라서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대부분 안사긴하는데 인형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알파카 털을 어떻게 가공하는지도 보여줍니다.

5. Dog Sledding

개썰매라고 해서 큰 개들이 끌줄 알았는데 개들이 작고 날씬해서 끌 수 있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끌려서 놀랐습니다. 썰매에는 강아지들을 조종하시는 분 한명, 학생 2명. 이렇게 총 3명이 탔는데도 빠르게 잘 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는 크게 한바퀴였고 한번만 탈 수 있었습니다. 개들이 금방 지쳐서 그렇게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6. Freshers 2.0

학교에서 주최하는 파티입니다. Soo Blaster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티켓을 들고가면 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DJ도 있고 노래도 크게 틀고 조명도 반짝반짝한게 딱 클럽이어서 캐나다 스타일 파티를 볼 수 있나 싶어 기대했는데 하필 저희가 파견되기 전에 인도계 학생들이 알고마대학교로 많이 입학해서 신입생들이 대부분 인도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노래도 다 인도노래고 나와서 춤추는 사람도 인도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파티는 볼 수 없었습니다.

7. Ski, Smores

리조트에 가서 스키를 하루종일 탑니다. 스키화나 장비는 리조트에서 빌려줍니다. 한국에서 미리 사이즈 조사를 하니깐 그 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저는 사이즈가 괜찮았지만 사이즈미스로 바꾸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스키는 처음배우든 원래 잘타든 모두 강습을 받고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기초언덕 옆에 중급코스, 고급코스가 있는데 두 언덕의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중급코스가 굉장히 높고 가파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눈의 상태가 좋은 날이어서 스키타기 좋은날이었다고는 했지만 저는 스키탈 때 넘어지는게 무서워서 몇 번타고 실내에서 놀았습니다. 실내에 있어도 할게 없는건 아닙니다. 마쉬멜로우를 화로에 구워먹는 smore를 할 수도 있고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이 다 제공되어서 따로 밥을 챙겨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키 탈 때 엄청 추워서 저는 장갑을 두 개 씩 껴했습니다. 발도 엄청 시려우니까 양말을 두 개 이상 신고 부츠를 신어야 합니다. 모자는 헬멧을 쓰기 때문에 스키 탈 때는 안쓰는데 나중에 헬멧 벗으면 땀에 젖어있기 때문에 모자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스키복은 여분이 있는 홈스테이가 많으므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저는 장갑이랑 목도리도 체크하시고 그거가지고는 안된다 하시면서 더 빌려주셨습니다.

8. Soo Greyhounds Hockey Game

현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봅니다. 표는 학교에서 준비해줍니다. 원래 하키에는 관심도 없었고 룰도 몰랐는데 룰이 쉬워서 보면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선수들끼리 싸움붙는 것도 재밌는 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홈그라운드 경기였는데 홈팀이 져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9. Lunar New Year Celebration

여기서 그동안 준비한 발표와 2시간만에 준비한 춤공연을 했습니다. 발표는 10분동안 진행되었고 모두 집중하고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은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여서 부담없이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춤공연은 준비하는 시간이 딱 2시간있었는데 그 시간안에 노래정하고 안무연습하고 무대구성까지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안무지만 모두가 아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twice의 cheer up을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안에 준비를 해야해서 미리 말해줬다면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대를 완성해가면서 서로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발표와 춤공연 이외에는 다른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보거나 준비된 음식들을 함께 먹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체진행-----

1. Toronto

원래는 저희가 토론토에 도착해서 수세인트마리로 가는 비행기를 당일 타야했으나 그날 수세인트마리행 비행이 취소되어서 토론토에서 하루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어캐나다에서 숙소와 조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자고 다음날 조식을 먹고 짐을 공항에 맡긴 후 토론토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에조를 짜서 다녔습니다. 저희조는 CN tower와 Eaton centre를 갔는데 사진찍고 쇼핑하는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 후엔 UP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가서 수세인트마리 9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는 덕분에 예정에는 없던 토론토 관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 America 가서 쇼핑도 하고 미국 수세인트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홈엄마가 데려가주셔서 따라갔는데 캐나다 수세인트마리와 다를것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있다면 주이름이었습니디. 미국에서 옷을 싸게 샀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때는 뭐가 좋은지 몰랐어서 아무것도 못샀습니다.. 타미힐피거, 콜롬비아, 아디다스, 퓨마 등 한국에서 비싼 브랜드를 싸게 파니까 꼭 알아보고 가세요.. 3. Camping & Sauna 다른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한국친구들 좀 모아서 별장에 데려가 주셔서 1박할 수 있었습니다. 별장에 놀러가서 지내고 사우나도 하는 것을 그곳에선 캠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별장에서 벽난로 옆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어나서 보드게임도 하고 사우나도 하러 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 Tubbing 마지막 주에 미국에 있는 썰매장에 갔습니다. 스키보다 이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여기도 눈과 언덕이 천연이고 경사도 꽤 있고 언덕도 높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타도 재미있었습니다. 학생가격으로는 2시간에 6달러정도 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식이었는데 그날따라 비가와서 눈이 다 어는 바람에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서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튜브를 잡고 같이 탈 수도 있는데 그게 무게가 더 무거워져서 더 빨리 내려갑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추위 생각하고 갔다가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가 캐나다에서 제일 추울 때였기 때문에 -35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밖에 물뿌리면 바로 어는 정도로 추웠습니다. 롱패딩은 필수고 히트텍 상의 하의 다 넉넉하게 챙겨갔었습니다. 스마트폰 장갑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장갑없이 밖에서 핸드폰하면 손 잘라내야되나 싶을 정도로 얼어요. 그리고 부츠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운동화보다 많이 신고 다닙니다. 평소에 별 활동안해도 부츠신고 다닙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금방 쌓이기 때문에 눈 헤치고 다녀야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다같이 놀고 11시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놀다가 버스타고 잘못된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다만 마리화나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술집에 가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마약한 사람들에게 시비될 수도 있습니다. 술집마다 Security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희 홈스테이에는 일본인 유학생이 이미 살고 있어서 눈치가 좀 덜보이긴 했는데 우선 별다른 규칙도 없었고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들어가면 아무도 방해 안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샤워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샤워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 방에 침대, 책상, 거울, 서랍 다 있었고 1층이 학생들 방, 지하가 부모님들 방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할 거 없는 저녁시간에는 지하에 있는 티비보는 방에 모여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다같이 모여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씩 최대한 모아서 주말에 각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각자 알아서 차려먹었습니다. 좀 초반에는 아침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해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거 그냥 꺼내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전날 저녁에 남은걸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학교갈 때 가져갔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6시전에는 먹는 편입니다. 대충 4시나 5시부터 준비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날에는 페메로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매일 피자나 파스타, 샐러드 먹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맞았습니다. 그게 주식이어서 매운 음식이 조금 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밥을 자주 준비해주셔서 한국음식이 자주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홈스테이에는 고추장이랑 된장이 있어서 더더욱 생각나지 않았지만 컵밥이나 컵라면을 챙겨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외식할 때는 식당들이 다 비쌌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맛이 괜찮았습니다. 이탈리아, 인도식당, 스시식당. 웬만하면 맛이 괜찮긴 하지만 가격이 쎄서 수업이 밖에서 끝나거나 술먹으러 가는 날에만 외식을 했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타고 갔다가 길한번 잃어버린 후로 홈스테이에서 계속 태워다주셨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통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는 터미널까지 갔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오후에 놀고 집에 갈때는 버스가 한시간에 한 대씩 밖에 없어서 조금 불

	편했었습니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한 두정거장 빨리 또는 느리게 내린다고 큰일 안납니다. 그래서 대중 목적지가 보인다 싶으면 줄을 당겼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약 CAD 525	미국달러 \$400->토론토에서 CAD로 환전 <다 쓰고 카드썼음.>
합계		한국 돈으로 약 62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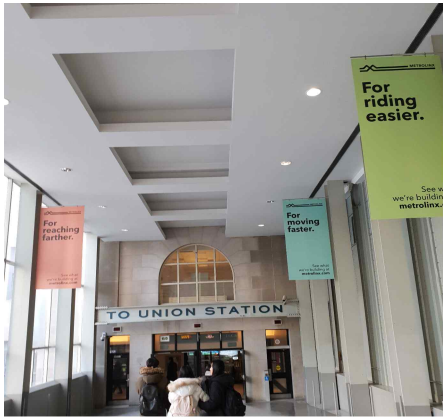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저도 수기보고 갔는데 쇼핑 안 해도 최소 50만원 환전해야 한다고 한거 보고 너무 많이 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최소 50만원 맞습니다. 저도 쇼핑할 생각 없이 갔는데 달러 다 쓰고 카드까지 쓰고 왔습니다. 이거저거 사먹고 옷 사고 기념품사면 카드 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부츠는 꼭 개인용 들고 가세요. 그리고 캐리어는 자리 꼭 남겨가세요. 저 하나 들고 갔다가 캐리어 두 개로 한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심이 나아요. 로밍은 비쌉니다. 거기도 와이파이 잘 터져서 쓸 일 별로 없긴 한데 길 잃었을 때나 밖에서 길 찾을 때가 많아서 데이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맵 꼭 깔아가세요. 버스 정보랑 시간도 선생님들이 알려준 것 보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적응되면 방안에 혼자 있지 말고 친구들이든 홈스테이 가족들이든 어울려서 밖으로 나가 노세요. 나중엔 다 추억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알고마가 2지망이었는데요. 수세인트마리가 모두에게 생소한 지역이기도 하고 밴쿠버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밴쿠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수세인트마리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한 곳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도 생각 그대로의 외국집이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도심이랑 많이 떨어져 있고 학교 끝나고 학생들끼리 가서 놀곳도 없지만 없으면 없는대로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캠핑도 가고 쇼핑도 가고 바도 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문화에 대해 아는 것에 관심이 많다보니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정말 꿈에 그리던 외국생활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학연수를 마지막으로 과생활에 전념할 생각이었는데 교환학생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년동안 교환학생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회화공부를 하고 교환학생에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공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 전공에 필요한 시험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 공항에서 CN타워로 이동하는 중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주신 선물 초콜릿, 자석, 카드, 엽서들, 키링, 메이플시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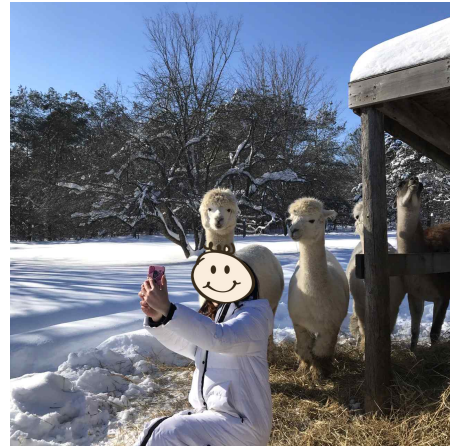
스키타러 가서 언덕 위에서 찍은 사진



Greyhounds 하키 게임
빨간 유니폼이 홈그라운드 팀이었다.
하지만 졌다.



우리집에서 다른 친구들 초대해서
한국음식 먹고 파티한 날
설거지하고 있는 친구는 나나미 (같이
사는 일본인 유학생)



알파카 농장